

# Aviation Industry (Overweight)

## 3월 항공 데이터: 계속되는 변수

### 항공 산업 포인트

3월 여객 동향은 큰 특이사항 없음. 일본 견조하고, 중국도 편당 여객 수 증가 추세. 미국발 변수가 계속되는 중. 항공 화물 수송, 항공기 제조, 여객 수요 등 다방면으로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운송/기계/로보틱스 양승윤\_02)368-6139\_s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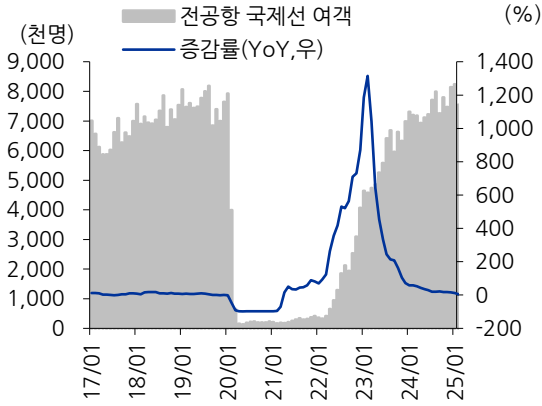
- [여객 수송 리뷰]** 3월 국제선 여객 759만명(+1%mom, +6%yoy, 19년 동월대비 100%), 국내선 여객 443만명(+11%mom, -12%yoy) 기록. 노선별 여객 수(인천공항 기준)는 일본 164만명(+6%mom, +8%yoy), 동남아 169만명(-11%mom, -5%yoy), 미주 54만명(+15%mom, +9%yoy), 구주 34만명(+12%mom, +5%yoy), 중국 89만명(+6%mom, +25%yoy), 대양주 20만명(-12%mom, -12%yoy)
- [화물 수송 리뷰]** 3월 BAI 운임 지수(홍콩-북미)는 5.3달러/kg(+8%yoy, -2%qqq),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26만톤(+23%mom, +1%yoy). 물동량은 계절성으로 반등했지만, 운임은 우하향 추세
- [3월 총평]** 2월에도 주요 국제 노선 계절성 큰 특이사항 없이 추이. 일본 노선 3월 기준 24년 대비 운항편수 9% 증가에도, 편당 여객 수 199명(24년 동월 201명)으로 소폭 감소. 소도시 등 신규 수요 창출에 따른 일본 선호 경향은 계속될 수 있음. 중국 노선 편당 여객 수도 증가 추세인 점은 고무적
- [4월 전망]** 미국 발 변수가 계속됨. 관세 부과로 인한 화물 시장 변동 등. (1) 4월 관세 부과 이전 긴급 수요가 항공 화물로 유입되며 운임 변동 가능성. 실제 부과 이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우려. 2월에 유예된 중국발 소액 면세(800달러 이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서명된 점도 우려 사안. 한편, 해운 시장에서 중국 선박 등 미국 항공구입항 시 수수료 부과 가능성 있어, 항공 수요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 긍정/부정 요인이 혼재. (2) 항공기 신조 시장에도 관세 영향 존재. 부품 수급 등 이슈로 제조 혼란 계속. 타이트한 항공기 수급 지속될 것. (3) 장기적으로는 여객 시황에도 영향 가능성. 미국 항공사들 경기 불확실성 및 소비 위축 이유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중
- [투자 전략]** 1분기 실적 시즌 돌입. 연초 사고 여파, 환율 영향 등 겹치며 성수기에도 슬로우한 스타트 전망

### 전 공항 기준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천명, 천톤, %)	구분	Mar-25	yoy	Mar-19	vs. 2019
전체 여객 수	전체	12,017	-1	12,747	-6
	국제선	7,590	6	7,600	0
	국내선	4,426	-12	5,148	-14
	환승여객	658	-3	602	9
국적 대형항공사 여객 (FSCs)	전체	4,289	3	4,946	-13
	국제선	2,622	9	2,807	-7
	국내선	1,667	-5	2,139	-22
국적 저비용항공사 여객 (LCCs)	전체	5,342	-8	5,448	-2
	국제선	2,582	2	2,439	6
	국내선	2,760	-15	3,009	-8
화물 수송	(인천)	261	1	24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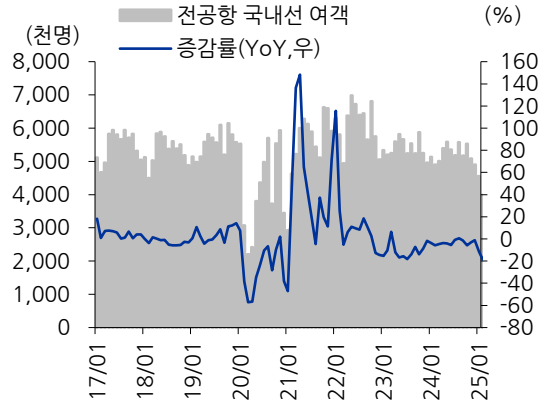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 전 공항 국제선 여객 수 및 증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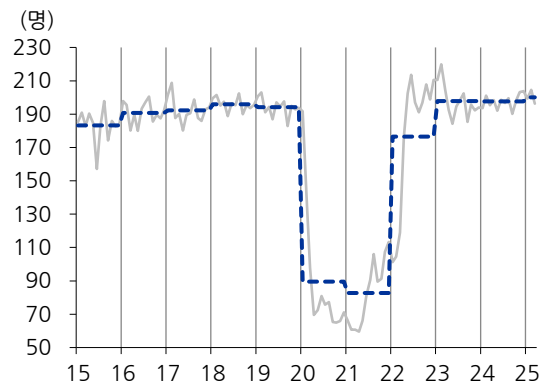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전 공항 국내선 여객 수 및 증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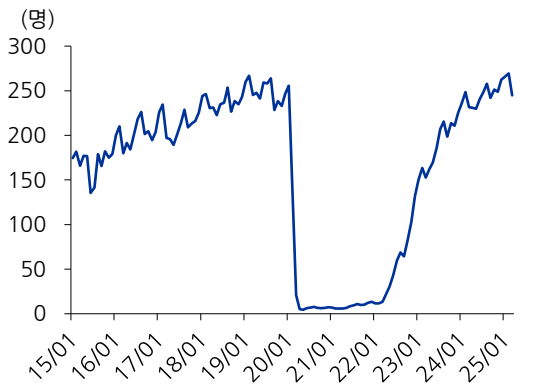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인천공항 국제선 편당 여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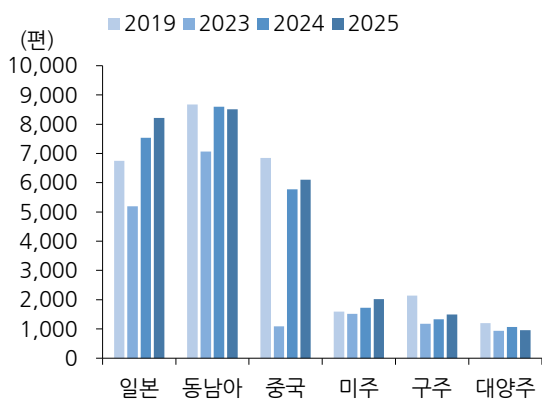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전 공항 일평균 여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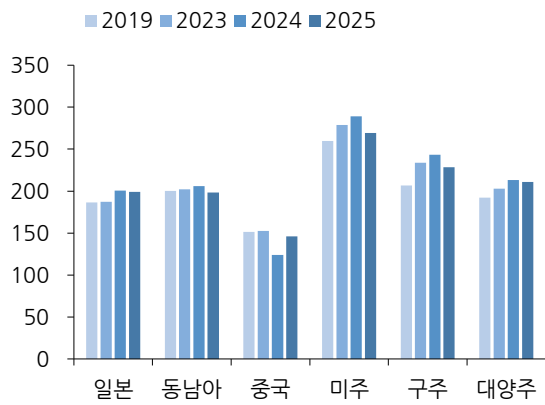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인천공항 노선별 운항편수 변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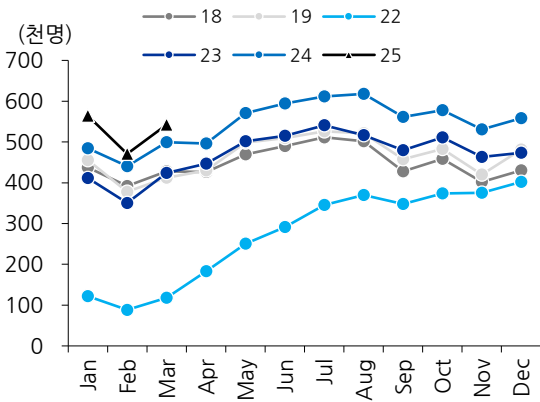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인천공항 노선별 편당 여객 변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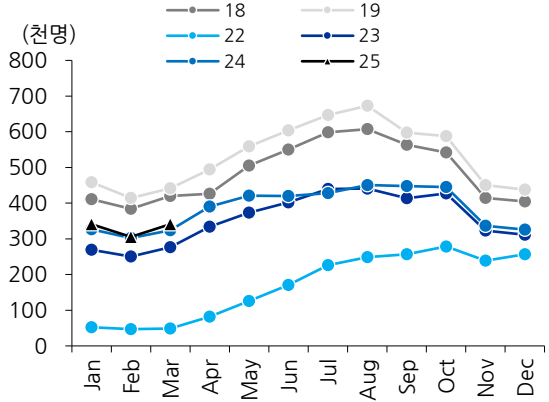
자료: KAC,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7. 인천공항 미주 노선 여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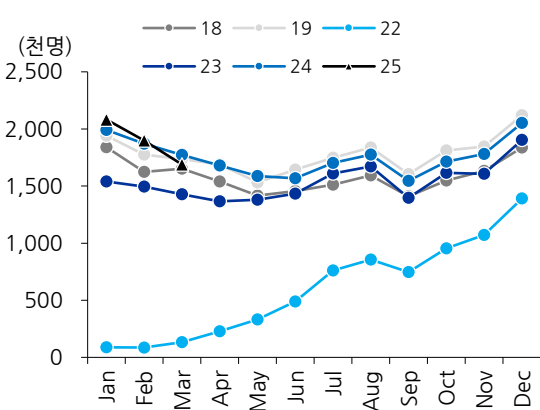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인천공항 유럽 노선 여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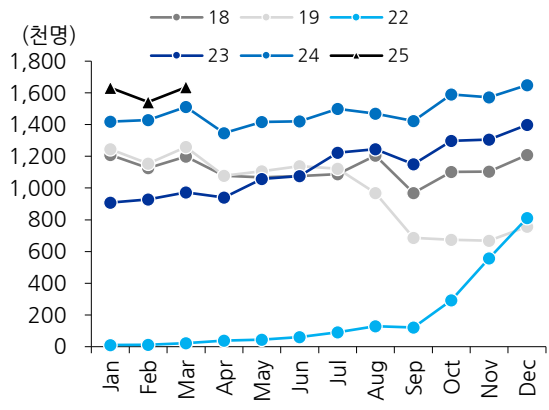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인천공항 동남아 노선 여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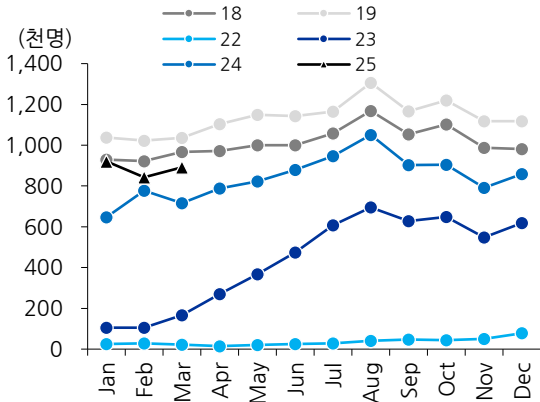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인천공항 일본 노선 여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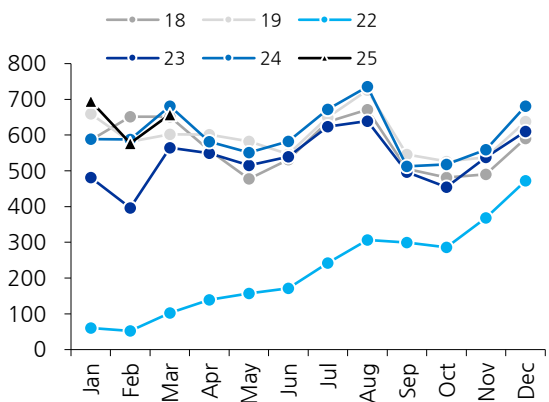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인천공항 중국 노선 여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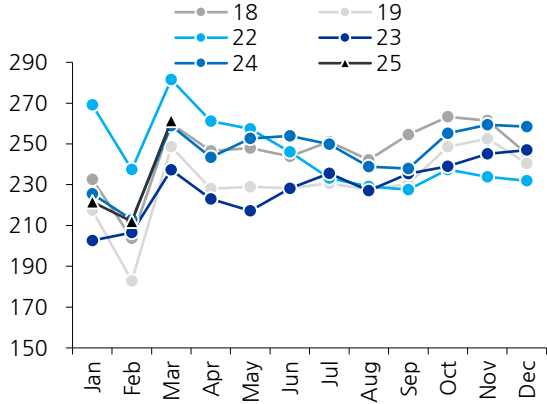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인천공항 환승 여객 수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월별 항공화물 수송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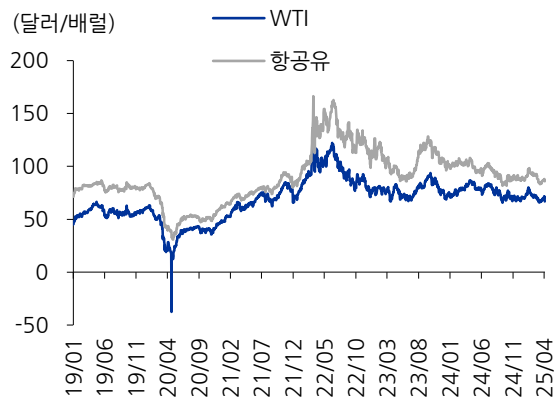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BAI 화물 운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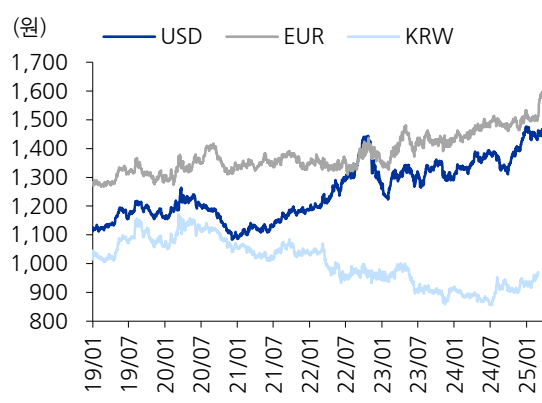
자료: TAC,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WTI & 항공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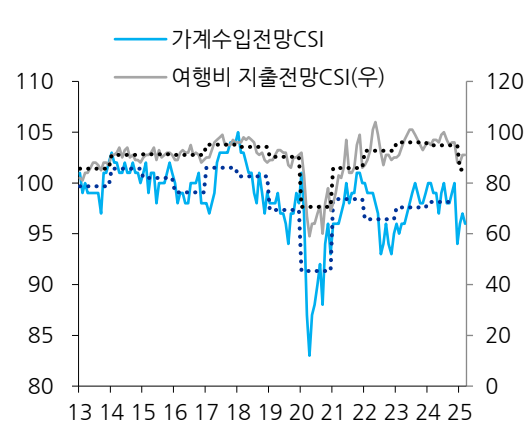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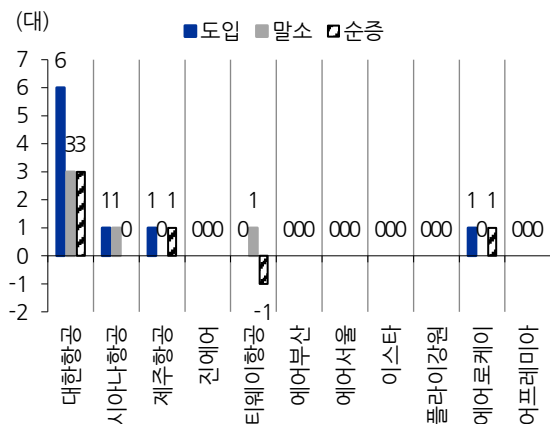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여행비 지출 전망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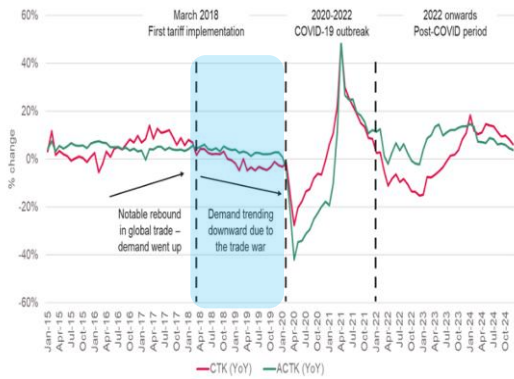
도표 18. 항공사별 기재 순증감 현황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과거 무역분쟁 시기 화물 수요 공급

The trend of global air cargo supply and demand



자료: Cirium,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미국 관세는 항공기 부품 시장에도 영향

Exclusive: Aircraft supplier Howmet may halt orders if hit by Trump tariffs, letter says

By Allison Lampert and Tim Hether

April 7, 2025 1:52 PM CMT+9 · Updated 17 hours ago



An aerial view of several Boeing 737 MAX airplanes parked at King County International Airport Boeing Field in Seattle, Washington, U.S. June 1, 2022. REUTERS/Lindy Wasson/Photo Purchase License/Booth CS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도표 21. 항공사별 기재 보유 현황(3월)

기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A220-300	10	0	0	0	0	0	0	0	0	0	0
A320-200	0	0	0	0	0	5	0	0	0	7	0
A321-200	0	12	0	0	0	8	6	0	0	0	0
A321-200 NEO	15	13	0	0	0	8	0	0	0	0	0
A330-200	1	0	0	0	5	0	0	0	0	0	0
A330-300	21	14	0	0	4	0	0	0	0	0	0
A350-900	2	15	0	0	0	0	0	0	0	0	0
A350-1000	0	0	0	0	0	0	0	0	0	0	0
A380-800	7	6	0	0	0	0	0	0	0	0	0
B737-800	2	0	37	19	26	0	0	10	0	0	0
B737-900	9	0	0	3	0	0	0	0	0	0	0
B737-900ER	6	0	0	0	0	0	0	0	0	0	0
B737-8	6	0	3	5	2	0	0	5	0	0	0
B767-300	0	1	0	0	0	0	0	0	0	0	0
B777-200	6	9	0	4	0	0	0	0	0	0	0
B777-300	4	0	0	0	0	0	0	0	0	0	0
B777-300ER	26	0	0	0	1	0	0	0	0	0	0
B777-9	0	0	0	0	0	0	0	0	0	0	0
B787-9	14	0	0	0	0	0	0	0	0	0	6
B787-10	7	0	0	0	0	0	0	0	0	0	0
B747-400	1	0	0	0	0	0	0	0	0	0	0
B747-8	7	0	0	0	0	0	0	0	0	0	0
B737-BCF	0	0	2	0	0	0	0	0	0	0	0
B747-400F	4	7	0	0	0	0	0	0	0	0	0
B747-400(BDSF)	0	2	0	0	0	0	0	0	0	0	0
B747-400SF	0	2	0	0	0	0	0	0	0	0	0
B747-8F	7	0	0	0	0	0	0	0	0	0	0
B767-300F	0	1	0	0	0	0	0	0	0	0	0
B777F	12	0	0	0	0	0	0	0	0	0	0
총 합계	167	82	42	31	38	21	6	15	0	7	6
여객기 합계	144	70	42	31	38	21	6	15	0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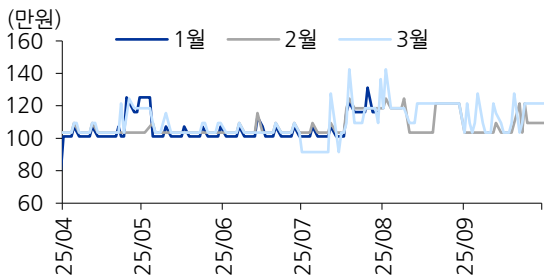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한달간 주요 뉴스

Week	여객	기업별 이슈	기타	글로벌
20250303	이스타항공, 부산-제주 노선 취항. 하루 왕복 4회 대한항공, 사천-제주 항공노선 주 5회 증편 운항 중국 방문객 전년비 60% 증가. 설 연휴 일본 이어 2위	아시아나항공, 6년 만에 정액자금 3.6조 전액 상환 대한항공, 콧 스카이트릭스 '5성항공사' 5년 연속 선정 기본급 500% 대한항공, 역대 최고 성과급 지급 진에어 연건 이상 소송 감지로 회항 소송 진에어, 2025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 대명소노,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 확보 티웨이, B773ER 투입 준비, 3월 국내선, 4월 국제선 티웨이항공, 작년 영업손실 122억원, 적자전환 티웨이, 올해 항공 안전 투자, 6011억원 LCC 최대 이스타항공이 나리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 이전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강화 3월 1일부터 시행 3월부터 광명역에서 아시아나항공 탑승 가능	ANA, 신형 항공사 77대 발주. 국제선 15배로 늘린다 대한 에어항공, 기내서 휴대용 배터리 사용 금지 보잉 B787 122대 구조수리 재작업 완료 엠펙라벨 2024년 인도 73대, 2025년 85대 목표
20250310	티웨이항공, 청주-울진 울진비행터미널 신규 취항 양양-제주 항공 노선 오는 8월 재개 편성 대한항공 사천-제주 노선, 주 5일로 운항 증편 관세 폭탄 속 항공 해운 운임 동반 하락	대한항공, 신규 기업 가치제거 KE Way 선포 대한항공 상보로 지상포입 개시. 연내 오사카도 개시 진에어도 CI 교체 검토. '통합 진에어' 내년 12월 출범 티웨이항공, 대명소노 인수 후 사명 변경 추진 대명소노, 소액주주 반대 불구 유상증자 진행 나설듯 티웨이항공 종은 대명소노, 광 굴포장 두 곳 추가 인수	통합 대한항공 시점까지 이행 관리할 이항감독원 발족 에어부산, SAF 상용 운항 시작. 부산-마쓰야마 1% 혼유	2월 에어버스 신조 인도 40대 기록. 24년 대비 저조 에어아시아 전년 매출 39% 고속 성장 6.2조원 타키항공, 24년 24억 달러 영업이익, 화물 35% 성장
20250317	2월 국제선 여객, 제주항공 LCC 승객 1위 재발현 에어프레미아, 하와이 노선 주 4회 취항	통합 출범에 나서는 대한항공, 41년만에 CI 교체 대한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 777-300ER에 본격 도입 조원태 회장,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능성 부인 진에어, 정비 인력 60명 채용, 안전운항 강화 티웨이항공, 올해 정비사 1700명 채용 계획 티웨이항공, 27년 말까지 B737-8 20대로 확대 티웨이항공, 주주총회서 사내/외 이사 대규모 교체 에어프레미아, 기재 부록으로 무대기 지연 결함 논란 확대 하와이어, '세리메이로' 사명 변경	SK에너지, 홍콩 국적 항공사와 2만톤 SAF 공급 계약	트윈프랄 불확실성에美 항공사들, 수익 기대치 하향 조정 사우스웨스트 항공, 무료 수하물 정책 변경 발표 보잉 2월 항공기 인도 44대 기록. 24년 대비 큰 폭 개선 보잉, 이탈리아 부품사와 부품 스캔들, B787 500대 열항 GE에어로, 미국 연건 생산 확대에 10억달러 투자 일본 하네다공항 터미널 확장 완료. 인천과 경쟁 에어캡, 트윈프랄 문제로 787 대당 최대 4천만달러 전량 넥스트, 4월 5일 인천-엘레미라 재취항 KLM을 하계 시즌 인천-암스테르담 노선율 주 7회로 증편
20250324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노선 5월부터 매일 운항 아시아나, 4월부터 파라과이 등 유린 노선 일부 감편 아시아나항공, 美 노선에 매일리치 전용기 운항 티웨이항공, 청주-발리 노선 운항 확정 에어로케이, 청주-일본 후쿠오카 5월 취항 대구항공 직항 노선 6월부터 운항	대한항공, 미 보잉 항공기 50대, 예비 엔진 구매 계약 공정위 규제 영향, 아시아나 행차리 항공권 등간 아시아나, 인천 T2 이전 TF 구성 4분기 이전 전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승무원 첫 파견 대한항공, 통합 항공사 앞두고 라온지 '고급화' 선언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 공개. 국내 항공사 최초 체계시험 에어프레미아 경영진 5월 20일 '분수령' ※ 항공기 바뀐다기 티웨이, 승객에 손해액 지급 판결 조원태 회장 "통합 항공사 매카캐리어와 상당히 경쟁" 대한항공, 보잉-GE 48조 합일 '기단재편-연진MRO' 확대 포석 박병환 진에어 대표 "LCC 3사 통합 완수해 한차원 도약" 제주항공-진에어, 6년 만에 배당, 주주환원 강화 티웨이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 '우수항공사' 수상 티웨이항공 일등석 승부수 내일 유럽 첫 서비스 티웨이, 구독형 티웨이플러스 출시 2주년 만족도 94% 대명소노, '티웨이' 사명 변경 시도 박차 아시아나 주문 비행기 대한항공 사용. 노조 배임 주장 에어프레미아, B-787 7호기 도입 완료 에어프레미아, 5월부터 마추 사부노선 증편 운항	월드항공, 아시아나개발회사의 지방 국제노선 유지	세계 2위 포화상태 공항, 정전으로 전면 폐쇄 홍콩항공 여객기, 배터리 폭발 추정 화재로 비상 착륙 유나이티드 항공, 4월부터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싱가포르, 수익성 개선위해 21대 항공기 조기 퇴역 일본항공 B737Max 17대, A321Neo 11대 주문 계획 일본항공 25년 국제선 중장거리 수요 강세 전망 일본항공 LCC 집어머 B787-9 10대 도입 계획
20250331	국내외 항공사, 올 하반기 45개국 246개 노선 4783회 운항 美 알래스카항공, 9월부터 인천-시애틀 운항	대한항공, 보잉-GE 48조 합일 '기단재편-연진MRO' 확대 포석 박병환 진에어 대표 "LCC 3사 통합 완수해 한차원 도약" 제주항공-진에어, 6년 만에 배당, 주주환원 강화 티웨이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 '우수항공사' 수상 티웨이항공 일등석 승부수 내일 유럽 첫 서비스 티웨이, 구독형 티웨이플러스 출시 2주년 만족도 94% 대명소노, '티웨이' 사명 변경 시도 박차 아시아나 주문 비행기 대한항공 사용. 노조 배임 주장 에어프레미아, B-787 7호기 도입 완료 에어프레미아, 5월부터 마추 사부노선 증편 운항	공항공사, 아시아나개발회사의 지방 국제노선 유지	美 에어메시 아차, 아프리카 UAM 시장 진출 유나이티드항공, 라온지 명바시 등 프로그래밍 가격 인상 중국 민항공 '4월 7일부터 보조배터리 사용-선반 보관 금지' 오만항공, 2024년 중동 지역 경시운항률 1위 라이언어어 대표, C919 가격 사면 구매 고려 알래스카항공, 26년 유럽 노선 취항 계획 알래스카항공, JAL 및 AA와 태평양 합작 투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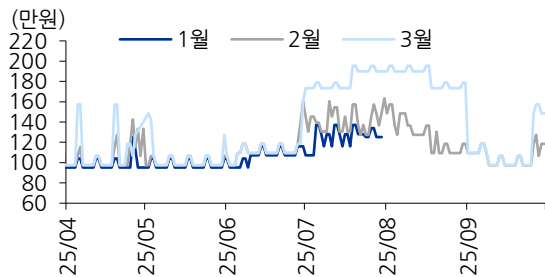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ICN-CDG 운임(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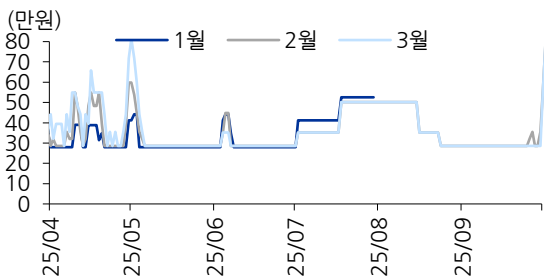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4. ICN-LAX 운임(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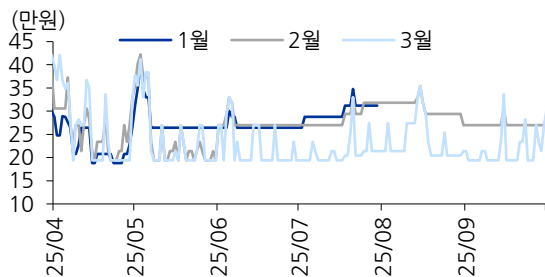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5. ICN-BKK 운임(K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ICN-NRT 운임(KE)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5.03.31 기준)